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의 차이 분석

이희라*·이재용**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경제학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있다. 분석자료로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임금에 대해서는 보통 최소자승법 모형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최소자승법모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44.9%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타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더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 하위 10%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160%정도의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상위 10%의 경우에는 무려 187%의 임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장애 유형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며, 저임금과 고임금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따른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장애 유형, 임금 격차, 저임금과 고임금, 보통 최소 자승법 모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I. 서론

노동 시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방위적 차별은 사회통합과 불평등의 쟁점으로서 꾸준히 지적되었다. 장애인은 노동 시장의 진입 자체도 어려움을 뿐더러, 노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하며, 적은 보수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88만 원으로 2017년 대비 상승하였지만(장애인실태조사, 2020),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약 268만 원에 비하면 이 역시 한참 적은 소득 수준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2020). 게다가 세부 장애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을 분석하였을 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기준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약 203만 원으로 추정되었지만, 지적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92만 원이며,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96만 원으로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도 확연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애인실태조사, 2020).

이에 장애인의 노동개선을 위해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근로 사업장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환경은 불안정하다(변민수, 조성혜,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자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과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한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다양한 정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시장 내의 위치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과 적절한 임금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경제적 구조 내의 위치 차이에 대해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강동욱, 2004; 유완식, 2011; 이수용 외, 2014). 또한, 최근 장애인 연구 동향은 장애인 집단 내 계층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 차별의 행태에 대해 세분화하여 논의가 전개되면서 장애인이 직면한 임금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정교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강동욱, 2005; 김정아 외, 2013; 임예직, 문영민, 2020).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집단 내부의 임금 격차와 장애 유형별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고찰하며 장애인의 노동 시장 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 집단 내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 먼저, 이성규(2014)의 연구가 있는데 장애유형별로 일상적인 차별경험이 다르며 특히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험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영(2021)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정도가 가장 심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경제와 근로영역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하고 지속적임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장애인 집단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선영과 이홍직(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임금 수준이 장애인 집단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심지어 장애 정도가 같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됨을 분석한 최준혁(2022)의 연구도 있다. 장애인 집단 전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장애인 집단 내 특정 유형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장원석과 이홍직(2022)의 연구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 장애인의 임금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체 장애인 근로자와 임금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지체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써 성별, 연령,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 학력 수준과 전공이나 보유기술능력과 같은 인적자본 요인, 근로 형태나 근로환경과 업무 만족도 같은 근무조건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보유기술능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기술교육이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장애 유형이 고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이성규, 2014), 차별 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장애유형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임금 수준을 함께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 유형이 장애인 집단 내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보통 최소 자승법 모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임금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선호차별이론

본 연구의 가설인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노동 시장이 어떻게 구조화 혹은 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 시장에 대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호차별이론(Taste Discrimination Theory)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개인적 편견에 기초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이론은 3개의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주에 의한 차

별(Employer Discrimination), 피고용자에 의한 차별(Employee Discrimination), 소비자에 의한 차별(Consumer Discrimination)이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임금 수준은 선호차별이론 중 고용주에 의한 차별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려는 확실한 선호가 존재하고, 동일한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있을지라도 고용주들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장애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과소평가하며, 장애인은 고임금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렇게 평가된 생산성은 객관적 수치와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고용주 오롯이 개인의 편견에 의한 것으로 본 이론은 설명한다. 또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업무 생산성이 과소평가 되고, 고임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 고용주가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근로능력을 검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호차별이론에서는 특히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편견에 기초한 선호를 극대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과 동치되기 때문이다. 선호차별이론에서 역설하는 것은 결국 경쟁 시장에서, 고용주가 자신의 편견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하기 꺼려한다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차별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자산과 수익을 얻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기업은 자신들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선우와 오욱찬(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과 장애 등급제도의 상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해 근로 능력 및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는 편견 하에 소득보장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용주가 이미 가지고 있기에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Yeo, Moore, 2003)

유동철(200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용했음에도 오히려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임금 수준은 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더라도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2. 통계적차별이론

통계적차별이론이란 기업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속한 인구집단의 평균적 특성과 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고용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지원자에 대한 직업 능력을 채용 전에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지원자가 속한 인구 사회학적 집단의 평균적인 통계 특성에 기반하여 고용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자신이 가진 장애의 정도, 장애 유형은 기업에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초기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이론은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차별을 선호차별이론과 유사하게 접근하지만,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을 다르게 분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호차별이론은 고용주의 선호와 취향으로 인해 차별이 야기된다고 설명하는데 반해, 통계적차별이론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생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집단의 특성에 기반하여 장애인 개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이론에 기초한 국외의 선행연구로 Aigner와 Cain(197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각 노동자 개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과 무관하며, 그 노동자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의해 발생함을 논의하였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 더 나아가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회가 비추고 있는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평균적인 이미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또한,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에서는 고용주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더 작용하기 쉬운 장애일수록, 특히 겉으로 식별하기 쉬운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일수록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었으며, 그들의 임금 역시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을 논하였다.

또한 국내의 양정빈의 연구(2015)에서는 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노동 시장 진입 이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장애 유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수준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 장애, 감각 장애,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 순으로 임금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 겉으로 식별하기 쉬운 장애 유형을 가졌을수록, 그리고 사람의 편견이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가질 수록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3.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s theory)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을 설명하는 쇠도가설(Crowding Hypothesis)을 변형한 이론으로써, 노동 시장이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고, 1차 노동 시장의 경우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갖춘 반면에, 2차 노동 시장의 경우 불안정적인 고용행태,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노동조건 또한 열악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나뉘는 노동 시장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각 부문의 노동 시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이로 인해 사회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닌 2차 노동 시장에 머물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진행된 국내의 연구 중 하나인 유완식(2011)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구조의 차이는 개인의 인적 자원 특성(성별, 연령, 학력, 근속기간 등)과 기업의 시장특성(기업규모, 고용형태, 직종, 노동조합 및 지역 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부존자원의 차이인가 아니면 임금차별인가’가 그 질문이다. 연구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인적 자원의 특성에 기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 설명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은 주로 고용되는 노동시장이 노동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 시장이며 이로 인해 겪는 임금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동욱(2005)의 연구에서도 노동 시장이 분절적이고 노동 시장 내의 노동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함수판별분석(MDFA)과 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취업 여부, 임금 수준, 가구소득, 결혼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차별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비해 33.4%의 차별을 겪고 있었으며, 임금 수급의 과정에서는 67.3%의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조적 임금 격차에 더하여 이민욱과 김성은(202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임금만을 측정해 임금 수급 과정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임금변화를 3가지로 유형화하는데 장애인 임금 수준을 저수준 유지, 고수준 유지, 중수준 증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농업에 종사 할수록,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수록 ‘저수준 유지’ 임금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연령 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기혼일수록, 중증보다 경증장애인일수

록,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신체 내부장애인일수록,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 유형에 있어서 고수준 유지 및 중수준 증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거나 애초에 지원할 수 있는 직종과 직무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별에 대해 정교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 총 15개는 다시 4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가 그것이다. 신체 외부 장애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을 포함하고, 신체 내부 장애는 신장이나 심장, 간과 같은 신체 내부에 있는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감각 장애의 경우 시각, 청각장애를 포함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장애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장애인 집단 내부의 임금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 성별과 학력, 장애의 정도, 이중장애 여부, 노조 가입여부, 사업체 규모, 혼인 유무, 급여 형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무 및 거주지역이 종속변수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변수로 판단된다. 앞서 논의한 장애인과 임금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와 기존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 유형에 따라 사람의 편견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이는 편견의 정도가 아닌 편견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게 되었다.

가설 1 : 장애 유형에 따라 임금의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고임금 및 저임금에서의 장애 유형별 임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Ⅲ.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자료

장애의 유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6차 조사를 분석한다.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국내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애인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조사이다. 본 패널 조사는 2008년부터 패널을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패널 이탈의 문제,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를 맞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새로운 설계와 패널을 구축하여 2차 웨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6). 이에 새로운 패널을 전국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만15세에서 만 64세로 구성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TAPI)를 활용하여 인적 및 장애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상태, 직업적 능력, 가구 사항 등 치밀하게 설계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9). 더불어 조사원의 편차오류 및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고자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응답의 일관성과 패널 유지를 위해 사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기에, 패널의 주된 장애 유형과 임금 변수를 추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에 패널 중 결측값을 가진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는 완전사례법(listwise deletion)을 사용하였으며, 총 1,343명의 장애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더불어 해당 패널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R(i386 4.1.2)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2. 변수 및 측정

독립변수인 장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패널 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종 장애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범주화한 장애의 유형은 뇌, 시각, 청각, 자폐성(발달), 정신 등 총 15가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가공 변수를 활용하여 총 4개의 유형(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으로 측정하였다. 신체 외부장애는 0의 값을 주었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순으로 1, 2, 3의 값을 부여한 후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였다. 종속변수

인 임금은 만원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연속 변수이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임금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월 평균 임금 값에 매우 작은 수(0.001)를 더해준 후, 임금에 로그를 취하였다(김현식, 2017).

더불어 예측 확률이 0과 1 사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선형확률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금의 하위 10%와 상위 1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명의 표본의 하위 10%의 로그를 취한 임금은 4.382(80만원), 상위 10%의 로그를 취한 임금은 5.991(400만원)으로 측정되었으며, 하위 혹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으로 주어 이항 변수 취급하였다.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두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혼동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Wooldridge, 2002). 이에 혼동변수를 통제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우선 장애인의 성별 격차에 따른 임금을 연구한 정한나(2010)와 간기현 외(2021)에 따르면, 장애인의 임금 격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라는 혼동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남성 장애인에게는 0의 값을, 여성에게는 1의 값을 주어 성별 변수를 통제하였다. 성별과 더불어 학력은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제 변수이다(이선영·이홍직, 2018; 김현식, 2021; 오지원, 2021). 또한 해당 패널에서 진행한 설문 중 하나인 “OOO님이 일자리(직장)에 취업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도움이 된 요소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라는 응답에 대해 153명(10개의 응답 중 5순위)이 최종 학력과 성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장애인의 학력은 임금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력에 대한 총 3개의 범주(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로 이루어진 학력 변수에서 중졸 이하를 기준 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금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선영·이홍직, 2018; 조재환·이진혁, 2021). 하지만 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020년도 2차 웨이브 자료부터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p. 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2,3급)에 0의 값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5,6급)에 1의 값을 주었다. 해당 변수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패널들의 기존 등급에 의거해 응답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록된 해당 응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판단되는 장애 중증 여부에 대한 응답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김현식의 연구(2021)에서는 무조합원(직장내 노동조합이 없는 장애인), 비조합원(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조합원(직장 내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장애인)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추정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무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에 가입된 장애인은 무조합원에 비해 10.2%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정규직에 한정하였을 때도 무조합원에 비해 조합원이 8.9% 높은 임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조합가입 여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OOO님의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OOO님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무조합원에게는 0의 값을, 조합원에게는 1의 값을 할당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용 외, 2014; 유완식, 2011; 이영경, 임업, 2016). 먼저 사업체 규모의 경우, 2021년 2차 웨이브 6차 조사의 데이터에서는 일자리의 근로자 수를 10개로 범주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여 10인 미만, 10~99인, 100인 이상의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여, 9인 이하의 사업체 규모를 기준 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임금을 받는 곳(현재 일하는 곳, 용역 및 파견업체)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장애인의 임금에 관한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3. 분석 방법

1) 보통최소자승법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4개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종속변수인 로그를 취한 임금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함으로써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 및 혼동변수($X_{2...k}$)와 종속변수(Y) 간의 관계를 다음의 회귀방정식에 기인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k X_k + \epsilon$$

해당 식에서 Y 는 로그 월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 변수이며, X_1 은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을

의미한다. 또한 $X_{2...k}$ 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혼동변수를 뜻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식을 구성하는 β_0 은 절편을 뜻한다. β_1 은 독립변수인 장애의 유형에 대한 계수를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추정값이다. 이 식을 구성하는 앞선 값들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의 [lm] 명령어를 사용하였다(Team, 2020).

2)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자료를 정밀히 분석하고자 소득 수준에서의 상위 및 하위 10%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앞선 선형회귀와 같이 독립 및 혼동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2) \text{Logit}[P(Y=1)]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k X_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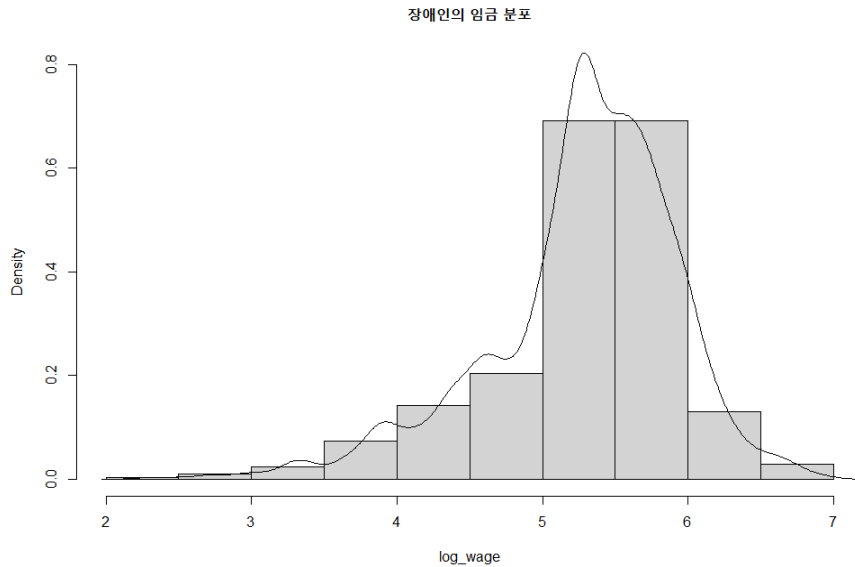
해당 식에서 범주형인 설명 변수를 포함 시키기 위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의 개념을 활용하여 X_1 을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상위 및 하위 10%의 임금을 받는 표본들에 대해서 해당하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줌으로써 해당 변수의 확률(Probability)에 대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인 β_1 은 X_1 이 한 단위 증가할 때, Y 의 로그 승산이 β_1 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β_1 값은 확률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β_1 의 절댓값이 클수록 독립변수인 X_1 이 $P(Y=1)$ 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수와 그에 따른 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모델에서는 [glm] 명령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Team, 2020).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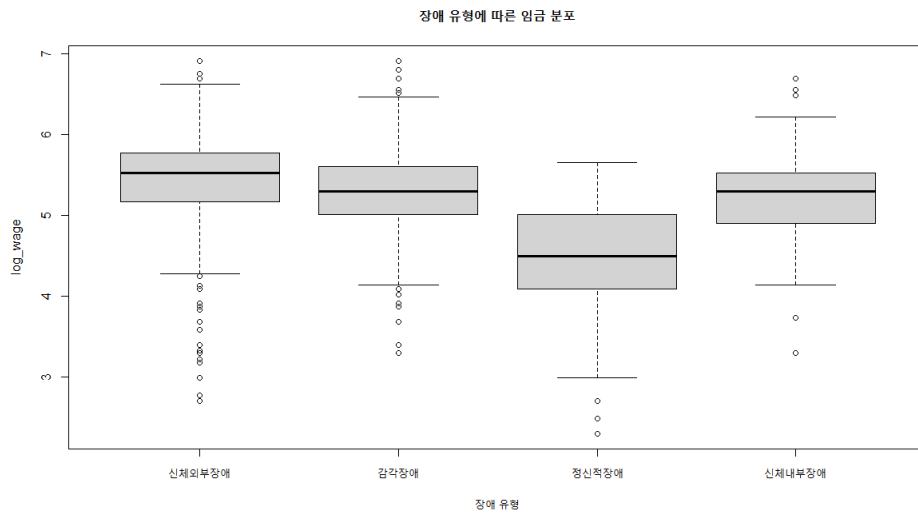
1. 기술 통계

먼저 아래에 제시한 <그림 1>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명의 장애인의 임금 분포를 나타낸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임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그 임금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을 통해 임금의 분포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2>는 장애 유형 별 로그 임금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 외부 장애

인이 전체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감각 장애인과 신체 내부 장애인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임금을,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전체 장애인 로그 임금 분포



〈그림 2〉 장애 유형에 따른 로그 임금 분포

또한 아래에 제시한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데이터는 총 1,343명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속 변수 취급한 종속변수인 로그 임금 값은 평균으로 나타내주었다. 이를 제외한 혼동변수는 각각의 사례 값과 백분율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각 혼동변수와 종속변수의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표본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살피기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총 4개로 가공한 장애 유형의 비율을 보면, 신체 외부 장애인이 약 63%로 가장 높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가 그 뒤를 잇는다. 이는 21년 보건복지부에서 등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로그를 취한 월 평균 임금의 분포를 보면 전체 평균이 5.28이었으며, 이는 약 235만 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체 외부 장애인의 경우, 로그 임금 값의 평균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평균은 4.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로그를 제외하고 평균 임금을 측정해보면, 신체 외부 장애인은 월 평균 257만 원, 감각 장애인은 월 평균 223만 원, 정신적 장애인은 108만 원, 신체 내부 장애인은 월평균 22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배 이상 차이 났으며,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인의 표본 109명 모두가 장애의 정도와 중증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며 중증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임금 수준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와 중증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유무를 살펴보면, 혼인상태인 비율이 미혼인 상태의 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신체 외부 장애인과 감각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은 미혼인 상태가 약 6배 정도 많았다. 이는 장애 유형과 남녀차이에 따른 장애인의 결혼이행을 연구한 신유리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는 평생 미혼 상태로 남는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장애인의 임금 결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한 김성희와 정병오의 연구(2011)에서, 혼인상태가 임금 결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다는 2단계 임금 결정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 장애 유형별 기술 통계

구분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장애인 수(명)	849(63%)	318(24%)	109(8%)	67(5%)
반응변수				
로그 임금 (평균)	5.4	5.25	4.47	5.2
혼동변수				
이중장애여부				
있음	15(1%)	4(0%)	5(0%)	2(0%)
없음	834(62%)	314(23%)	104(8%)	65(5%)
장애의 정도				
심함	151(11%)	95(7%)	109(8%)	24(2%)
심하지 않음	698(52%)	223(17%)	0(0%)	43(3%)
장애의 심한 정도				
중증	77(6%)	66(5%)	109(9%)	23(2%)
경증	772(57%)	252(19%)	0(0%)	44(3%)
성별				
남자	669(50%)	216(16%)	81(6%)	45(3%)
여자	180(13%)	102(7%)	28(2%)	22(2%)
학력				
중졸 이하	119(8%)	63(5%)	14(1%)	7(0.5%)
건강보험				
가입	634(47%)	227(17%)	69(5%)	43(3%)
미가입	215(16%)	91(7%)	40(3%)	24(2%)
고용보험				
가입	620(46%)	224(17%)	71(5%)	43(3%)
미가입	229(17%)	94(7%)	38(3%)	24(2%)
산재보험				
가입	625(46%)	227(17%)	71(5%)	43(3%)
미가입	224(16%)	91(7%)	38(3%)	24(2%)
노조가입여부				
미가입	738(55%)	285(21%)	105(8%)	62(5%)
가입	111(8%)	33(2%)	4(0%)	5(0%)

2. 보통최소자승법모형 추정 결과

아래의 <표 2>에서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장애 유형 별 로그 임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분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감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약 44.9%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를 제외한 축소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완전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p-value가 2.2e-16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기에 완전모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을 밝힌다.

<표 2> 보통최소자승법모형 추정 결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장애 유형(vs.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0.026	(0.031)	
정신적 장애	-0.449	(0.062)	***
신체 내부 장애	-0.009	(0.062)	
노동조합가입 (vs. 무조합원)			
조합원	0.203	(0.042)	***
성별(vs. 남자)			
여자	-0.411	(0.030)	***
결혼(vs. 혼인)			
미혼	-0.191	(0.031)	***
학력(vs. 중졸 이하)			
고졸	0.213	(0.040)	***
대졸 이상	0.372	(0.042)	***
장애정도 (vs. 장애가 심하지 않음)			
장애가 심함	0.076	(0.049)	
장애의 중증 여부 (vs. 경증)			
중증	-0.169	(0.061)	**
이중장애 (vs. 이중장애 있음)			

구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이중장애 없음	0.199	(0.095)	*
근무 지역 (vs. 비수도권)			
수도권	-0.032	(0.026)	
사업체 규모 (vs. 10인 이하)			
10인 ~ 99인	-0.067	(0.035)	
100인 이상	0.893	(0.072)	
고용형태 (vs. 현재 일하는 곳)			
용업(파견) 업체	-0.120	(0.067)	
건강보험(vs. 미가입)			
가입	0.404	(0.083)	***
고용보험(vs. 미가입)			
가입	0.256	(0.099)	*
산재보험(vs. 미가입)			
가입	0.359	(0.089)	***
노조(vs. 미가입)			
가입	0.203	(0.042)	***

유의도 : * ≤ 0.05 , ** ≤ 0.01 , *** ≤ 0.001 .

3. 장애 유형별 고임금 및 저임금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에서 나타나는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3 개의 표본에서 상위 10%는 4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하위 10%는 8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먼저 기술 통계를 통해 장애 유형 별 고임금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신체 외부 장애인은 8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감각 장애인은 17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신적 장애인은 0명으로 나타났다. 즉, 단 한 명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상위 10%에 속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저임금에서 신체 외부 장애인은 58명, 감각 장애인은 37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9명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인은 4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통계를 <표 1>에서 나타난 전체 표

본의 비율(신체 외부 장애인은 전체 표본 중 가장 많은 849명이었고, 감각 장애인은 318명, 신체 내부 장애인은 67명, 정신적 장애인은 109명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전체 표본 대비 저임금에 분포된 장애 유형 별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인은 41.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저임금을 받았으며, 신체 외부 장애인은 6.8%, 감각 장애인은 11.6%, 신체 내부 장애인은 13.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고임금과 저임금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고임금 및 저임금에서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추정 결과

아래의 <표 3>은 장애 유형에 따른 상위 10%의 고임금 및 하위 10% 저임금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저임금에서의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 내부 장애인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 고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격차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각 장애인과 신체 내부 장애인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앞선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추정 결과

구분	저임금 (wage <= 80)			고임금 (wage >= 400)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장애 유형(vs. 신체 외부 장애)						
감각 장애	-0.080	(0.225)		-0.316	(0.173)	
정신적 장애	-1.601	(0.345)	***	-1.871	(0.643)	**
신체 내부 장애	-0.496	(0.368)		-0.403	(0.348)	
노동조합가 (vs. 무조합원)						
조합원	1.237	(0.630)	*	0.868	(0.215)	***
성별(vs. 남자)						
여자	-1.470	(0.195)	***	-2.203	(0.220)	
결혼(vs. 혼인)						***
미혼	-0.572	(0.219)	**	-0.948	(0.164)	

구분	저임금 (wage <= 80)			고임금 (wage >= 400)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학력(vs. 중졸 이하)						
고졸	0.682	(0.233)	**	1.061	(0.265)	***
대졸 이상	1.191	(0.270)	***	1.772	(0.268)	***
장애 정도(vs. 장애가 심하지 않음)						
장애가 심함	0.238	(0.351)		0.298	(0.262)	
장애의 중증 여부(vs. 경증)						
중증	-0.906	(0.400)	*	-0.546	(0.338)	
이중장애(vs. 이중장애 있음)						
이중장애 없음	0.814	(0.519)		0.765	(0.664)	
근무 지역(vs. 비수도권)						
수도권	-0.122	(0.184)		0.058	(0.144)	
사업체 규모(vs. 10인 이하)						
10인 ~ 99인	-0.130	(0.245)		-0.079	(0.191)	
100인 이상	1.239	(0.874)		0.115	(0.376)	
고용형태(vs. 현재 일하는 곳)						
용업(파견) 업체	-0.515	(0.486)		-1.664	(0.505)	***
건강보험(vs. 미가입)						
가입	1.582	(0.582)	**	0.868	(0.457)	
고용보험(vs. 미가입)						
가입	-1.312	(0.831)		-0.694	(0.507)	
산재보험(vs. 미가입)						
가입	1.804	(0.677)	**	1.049	(0.465)	*
노조(vs. 미가입)						
가입	0.763	(0.755)		1.068	(0.251)	***

유의도 : * < 0.05, ** 0.01, *** 0.001.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최소자승법(OLS) 모형에서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감각 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15%, 정신적 장애인은 92.3% 신체 내부 장애인은 19.3%만큼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혼동변수를 모두 포함한 완전모형에서는 신체 외부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약 44.9%의 임금 차이가 있었다. 정신적 장애인이 타 장애인에 비해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은 이유으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인식 및 임금에서의 차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금진(2006)은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차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로써 장애 특성으로 인한 임금 격차는 39.5%에 불과했지만,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는 60.5%로 나타났다. 즉, 정신적 장애인을 향한 고용주의 편견이 노동 시장 내의 임금 격차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변민수 외의 연구(2016)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임금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쏠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게 공평한 구조적·인식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임금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혼동변수를 제외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 80만 원 이하의 저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감각 장애인은 58.5%, 정신적 장애인은 226%의 임금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 내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400만 원 이상으로 측정한 고임금에서는 신체 외부 장애인과 비교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에서는, 감각 장애인의 임금 차이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약 66.5%의 임금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한 다중로지스틱모형에서는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고임금과 하위 10%의 저임금에서의 결과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매우 큰 임금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표본 1,343명 중 상위 및 하위 10%에서 측정된 결과의 계수가 더욱 크게 나왔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노동 시장의 저임금의 상태 의존성에 관한 변민수 외(2016)에 의하면, 전기의 저임금상태가 현재의 저임금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 신체 외부 장애인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 의존성의 차이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빈곤 탈출에 대한 구조적 기회가 장애 유형 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 근로 환경에 따른 근무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형렬(2017)의 연구에서, 신체 외부장애인은 평균적으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지만, 정신적 장애인 한참 적은 시간을 근무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빈곤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임예직과 문영민의 연구(2020)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불안정성 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직업적 능력과 노동 의지 등 임금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선 결과를 통해, 노동 시장 내에서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발생 시기가 타 장애보다 비교적 빠른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의 직업 교육을 더욱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신적 장애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 장애는, 신체 외부 장애를 포함한 타 장애에 비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의 정신적 장애 또한 대부분 유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신체 외부장애와 같은 타 장애는 유아기 이후에 노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여타 다른 이유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즉 장애 발생 시기가 비교적 이른 정신적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 중심적 노동 시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노동 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장애 유형과 발생 시기를 고려해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본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학계에서의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노동 시장 내에서의 직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 시장 내에서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불일치 정도를 분석한 오옥찬과 김수완의 연구(2021)에서는 타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기술 일치 비율,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은 직업을 뜻하는 적성 일치 비율, 그리고 본인의 교육 혹은 기술 수준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인 하향취업(과잉) 수준이 타 장애 유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노동에서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하향취업과 반대되는 상향취업은 임금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어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는 곧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직무 불일치로 인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며 이러한 직무 만족도를 해결함으로써, 노동 시장 내에서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결과를 뒷받침하는 일부 선행연구와 함의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몇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해석에서의 주의를 요한다. 첫째, 완전사례제거법을 통해 분석한 사례 수는 총 1,343명에 불과하다. 특히 상위 10%의 장애 유형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표본은 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장애 유형의 기준 변수를 지정할 때, 평균 임금이 가장 높으나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타 장애 유형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신체 외부 장애를 기준 변수로 삼았다. 이에 정신적 장애 외의 장애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임금 수준의 차이가 가장 심한 정신적 장애인을 기준 변수로 설정하였을 때는 결과에서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계층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월평균 소득이 해당 장애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호주(戶主)의 역할을 하는지, 혹은 단순 직업적 혹은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직업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자료는 21년도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시대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의 임금에 있어서 동태적 관점에 입각하여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기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그 임금 특성의 변화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장애인 노동 시장의 임금 격차에 대해 고찰하고, 여러 혼동변수를 통제하여 보통최소자승법모형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비록 신체 외부 장애인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인구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34.9만 원에 불과하지만, 21년 기준 모든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27만 원으로 추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또한 정신적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장애인의 임금 수준, 특히 저임금과 고임금의 장애인 노동자 중에서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데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을뿐더러 사회통합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추후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간기현, 김경희, 조상미 (2021).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능력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gender)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2), 149-173.
-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 강동욱. (2005).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21(0), 111-128.
-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s://www.moel.go.kr>
- 김성희, 정병오. (2011). 장애인의 임금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장애와 고용, 21(3), 185-207.
- 김자영. (202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중분류 장애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3(4), 27-48.
-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 (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321-338.
- 김현식. (2017). R을 활용한 기초 통계 분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현식. (2021). 장애인의 노동조합 참여와 임금 차이. 장애와 고용, 31(4), 107-126.
- 변민수, 김재호, 최원석. (2016).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 검증: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4), 57-53.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
- 신유리, 김미선, 김정석. (2020). 장애인의 결혼이행: 장애유형 및 남녀차이. 통계연구, 25(2), 78-100.
- 양정빈. (2015).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5(2), 226-253.
- 오지원 (2021). 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48-349.
- 유동철. (2000).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2(0), 290-313.
- 유완식.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기본과제보고서, 0, 1-79.
- 이금진. (2006).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장애와 고용, 16(2), 101-117.

- 이민옥, 김성은. (2020). 임금근로 장애인의 임금변화 유형화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3), 477-490.
- 이선영, 이홍직. (2018).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3(2), 179-189.
- 이선우, 오욱찬. (2020).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사회보장연구, 36(4), 57-83.
- 이성규. (2014).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6(4), 281-306.
- 이수용, 나운환, 최선아. (2014). 근로장애인의 임금변화궤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 연구, 24(2), 87-106.
- 이영경, 임엽 (2016).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이중차별적 임금격차 분석. 지역연구, 32(2), 45-59.
- 이형렬. (2017). 장애유형 중분류별 기업체 취업근로자의 빈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 외부, 감각, 신체내부, 정신적장애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9(1), 219-256.
- 임예직, 문영민. (2020).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 51(3), 147-176.
- 장원석, 이홍직. (2022). 지체장애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 지, 17(2), 185-190.
- 정한나. (2010). 장애인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장애와 고용, 20(1), 229-250.
- 조재환, 이진혁. (2021).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임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31(1), 217-243.
- 최준혁. (2022). 장애 중증도 수준에 따른 장애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재활치료과학, 11(2), 63-76.
-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kostat.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6차조사). <https://edi.kead.or.kr>
- Aigner, D. J., & Cain, G. G. (1977). Statistical theories of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s*, 30(2), 175-187.

- Baldwin, M., &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1), 1-19.
- Team, R. C.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Yeo, R., & Moore, K. (2003). Including disabled people in poverty reduction work: nothing about us, without us. *World Development*, 31(3), 571-590.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	-----------------------	----------------------

Abstract

A study on Wage difference by type of disability

Lee Hee Ra*·Lee Jae Y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theoretical discussion based on economics on the wage gap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and to verify it empirically. As analysis data, 6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in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EDI) was used, and wages including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and using the least squares metho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measured that in the OLS model, the mentally disabled received 44.9% less wages than the externally physically disabled,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disability types. In addition,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he bottom 10% of wages, the mentally disabled received 160% less than the externally disabled, and in the top 10% of wages, there was 187% difference in wag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wag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and since there is a greater gap between low and high wages.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y.

Keywords : Types of disability, wage gap, low and high wages,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hee University